

2026년  
한국 기독교   
부활절 맞이

# 부활절 공동예배문

"하나님의 창조세계, 한몸 되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고전 12:25-27)



부활절맞이 자료공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차례

2026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 공동예배문	3
2026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 공동예배문 해설	15
참고) 2026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 취지문	24
참고) 2026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 관련 웹자보	27

- 
- 한국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지만, 정교회와 성공회, 개신교 일부교회와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을 사용합니다. 본 자료는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I. 모임 예식 - 예배로의 부름

<p>예배로의 부름</p>	<p>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죽음의 밤을 지나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에 기대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부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어 성령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입는 예배로 나아갑시다.</p>	<p>인도자</p>
<p>기원</p>	<p>영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여기 암흑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불씨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p>	<p>인도자</p>
<p>부활 인사</p>	<p>인도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회    중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알렐루야!</p>	<p>인도자와 회중</p>
<p>입례 찬송</p>	<p style="text-align: center;">즐겁도다 이 날 (찬송가 167장)</p> <p style="text-align: center;">조금 빠르게 <span style="float: right;">F. R. Havergal, 1871</span></p>  <p>1. 즐 겁도다 이 날 세 세에 할 말 사 망 권 세 깨 고 2. 부 활 하 신 주 님 나 타 나 시 니 천 지 만 물 모 두 3. 생 명 의 주 예 수 죽 음 이 기 고 무 덤 문 을 열 고</p> <p>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앞이 우거져서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 대로 이루어져서</p> <p style="text-align: center;">후렴</p> <p>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 다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 다    즐 겁도다 이 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네</p> <p>세 세에 할 말 사 망 권 세 깨 고 승리 하 셧 네 아 멘</p>	<p>다같이</p>



- 찬송이 시작되면 회중은 모두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을 마치면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 III. 말씀의 전례 - 구원사의 예언과 성취

성령 조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부활의 새벽으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자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6절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그때가 되어야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 야훼가 선언한다. 칼부림에서 빠져나온 백성이 사막에서 나의 은혜를 입었다. 안식처를 찾아 나선 이스라엘에게 나 야훼는 멀리서 나타나 주었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너는 다시 일어서서 목치장을 하고 소구를 치며 흥겹게 춤추며 나오게 되리라. 사마리아 이 산 저 산에 다시 포도를 심고 심은 사람이 그 포도를 따먹게 되리라. '시온으로 올라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뵙자!'고 보초들의 외치는 소리가 에브라임 산에서 터져 나올 날이 왔다.  • 말씀 전례의 성경 본문은 2026년 교회력에 따른 부활주일 본문이며, 공동번역본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번역본과 본문을 선택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이
서신의 말씀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은이

<p>복음서의 말씀</p>	<p>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8절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음서를 봉독할 때 회중은 일어서서 말씀을 받습니다.</li> </ul>	<p>말은이</p>
	<p>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알려주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두 사람이 같이 달음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곧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잘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셔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셔요. 내가 모셔 가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하고 일러주셨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뵈는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 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p>	

특송 또는 찬송		말은이
설교		말은이

#### IV. 물의 예식 - 새로운 창조의 물과 세례 언약의 갱신

세례 재확인	인도자	<p>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의 부활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깨끗게 하시고 먼저 섬기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의 기억 들을 통해, 살리시며 깨끗게 하시는 세례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며,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하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며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p> <p>인도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모든 일을 거절하겠습니까?</p> <p>회 중 예, 거절하겠습니다.</p> <p>인도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타락시키는 악한 세력과 모든 죄악을 물리치겠습니까?</p> <p>회 중 예, 물리치겠습니다.</p> <p>인도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죄의 욕망을 버리겠습니까?</p> <p>회 중 예, 버리겠습니다.</p> <p>인도자 여러분은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p> <p>회 중 예, 생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p> <p>인도자 여러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p> <p>회 중 예,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p> <p>인도자 여러분은 온 세상을 보살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p> <p>회 중 예,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불의를 이길 힘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p> <p>인도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듯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한 몸</p>	인도자와 회중
--------	-----	---	---------

	인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까? 회 중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습니다.	
감사기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와 그 헌신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세계를 회복하시고 분열된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충만한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도자

## V. 성찬의 전례 - 한 몸이 되는 신비와 은총

평화의 인사	집례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평화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 중 또한 목사님/사제님과 함께 하소서. 집례자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다.	집례자와 회중
	• 모두 주변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봉헌과 찬송	<p>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가 161장)</p>	다같이
--------	------------------------------	-----

봉헌기도	<p>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함께하옵소서.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에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뵈게 하소서. 우리가 이 천국 잔치상을 미리 맛볼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p>	집례자
성찬 감사기도	<p>집례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회 중 또한 목사님/사제님과 함께 하소서. 집례자 마음을 드높이 회 중 주님께 올립니다. 집례자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회 중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집례자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죽음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고)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들고)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성찬례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선포합니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합니다.</p>	집례자와 회중

	<p>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예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p> <p>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가 된 교회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p> <p>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십니다.</p> <p>회 중 아멘.</p>	
주의 기도	<p>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p> <p>• 각자의 전통대로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p>	다같이
성찬나눔	<p>집례자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찬을 나눕니다.</p> <p>회 중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p> <p>집례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됩니다.</p> <p>회 중 주님 감사합니다.</p>	집례자와 회중
분병분잔	<p>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찬송가 231장)</p> 	다같이

후렴

우 리 주 앞 에 서 무 릎 을 꿇 때 에

자 비 를 베푸 소 서 (베푸 소 서)

3. 우리 다 같 이 무 릎 꿇 고 서 (꿇 고 서)

우 리 하 나 님 찬 양 드 리 세

후렴

우 리 주 앞 에 서 무 릎 을 꿇 때 에

자 비 를 베푸 소 서 (베푸 소 서)

- 분병분잔 동안 회중이나 찬양대가 함께 찬양합니다.
-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은 각 교회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 질서 있게 앞으로 나오거나 자리에서 준비된 성찬을 받습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연결된 한 몸의 공동체임을 기억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한  
한 몸 기도

부활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새 아침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집례자 또는  
다같이

절망의 돌문이 열리고 두려움의 밤이 물러가며  
 온 세상이 새 생명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서서  
 주님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전통과 언어, 역사 속에 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분열과 경쟁을 넘어 화해와 일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듯이  
 오늘도 교회가 서로의 길에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고통받는 세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부활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억눌린 이들에게 정의를,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한반도에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고  
 적대의 벽을 허무시어 평화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이 세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탐욕과 무절제 속에서 신음하는 창조세계가  
 다시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피조세계와 함께 탄식하며  
 창조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비와 지배의 삶이 아니라 돌봄과 절제의 삶을 선택하며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생명의 춤을 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부활의 희망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후  
감사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성찬을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  
다. 우리를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생명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모두  
한 몸을 이루어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 VI. 파송 예식 - 흠어지는 교회

코이노니아  
찬양

아 내 맘속에 (찬송가 411장)

다같이

아 - 내 맘 속 에 참 된 평 화 있 네  
이 - 귀 한 평 화 내 가 받 고 보 니  
주 - 날 개 아 래 내 가 사 는 동 안

주 예 수 가 주 신 평 화 -  
내 슬 보 품 이 사 라 지 고 -  
이 배 를 빛 내 리 고 라 -

시 험 닥 처 와 도 흔 들 리 지 않 아  
삼 에 기 뵈 냐 녘 처 주 들 리 양 하 네  
기 썬 그 날 이 와 주 를 만 나 볼 때

아 귀 하 다 이 평 안 함 -  
아 평 화 의 임 금 예 수 -  
아 그 평 화 영 원 하 리 -

주 - 기 항 상 계 서 내 맘 속 에  
주 - 기 항 상 계 서 아 기 썬 다  
주 나 의 맘 에 계 서 위 로 하 시 네  
어 찌 내 가 주 를 떠 나 살 까

•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결단의 몸짓으로 표현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축복 기도	<p>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주님께서 앞서 가시니 용기를 내어 갑시다. 그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p>	인도자
파송 말씀	<p>이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안고 정의와 평화의 순례길로 나아갑니다. 흠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며, 세상 속에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 갑니다.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p>	인도자
파송 찬송	<p>하나님 힘에 이끌리어 (성공회 찬송가 495장, 찬송가 312장)</p>  <p>1 하느님 힘에 이끌리어 엮드려 기도합니다  2 주님을 더욱 갈망하니 소망이나 의 것이며  3 주께서 신 그 곳으로 십자가 지고 따르며</p>  <p>두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크신 권능 믿으리  주께서 나 들세우시니 이 마음 모두 아시리  찬양과 기도 쉬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리라</p>  <p>믿음의 반석 되리라  기쁨의 찬송 부르리 주께서 옆에 계신다  진실로 나를 바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활절 공동예배문의 성서 본문은 에큐메니칼 성서인 ‘공동번역’입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li> <li>• 찬송 역시 선택하여 부르실 수 있습니다.</li> </ul>	다같이

## 생명과 평화의 신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잔치와 하나님 백성의 참여

---

### 1. 들어가는 말:

#### 부활, 한 몸을 이루는 생명과 평화의 신비

그리스도교 신앙의 심장인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생명의 승리이자, 흩어지고 찢긴 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궁극적인 화해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난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생각하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요한 17:11). 그러므로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일치하여 한 몸이 되라’는 주님의 당부에 응답하는 거룩한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발발하는 참혹한 전쟁과 폭력, 그 어느 때보다 극성을 부리는 패권주의의 횡포와 어두운 그늘 속에서 피조세계는 깊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와 그리스도교도 이념과 교파, 세대와 계층의 깊은 분열의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가운데 치유와 생명의 회복,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드리는 2026년 부활절 공동예배는 단순한 절기 예배의 반복이 아닙니다. 기존에 드리던 연합 예배의 틀과 관습을 벗어나, 그리스도교 신앙과 예배의 전통에서 길어 올린 ‘공동의 예배’를 진실하게 봉헌하려는 쇄신의 시작입니다. 정의와 평화, 사랑의 가치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말 그대로 살림의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죽음의 문화를 거슬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부

활의 '한 몸'을 온전히 받아 살겠다는 강력한 신앙고백이며 사회적 연대의 다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예배의 근간은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교 예배는 창조의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변화시키고 이끄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삼위일체 신비의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교리로 동의하는 것 너머에서, 빛을 밝히고(창조와 부활), 물의 기억을 되새기며(창조와 세례), 빵과 잔을 나누는 '몸의 예배'(새 생명의 창조와 선교)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생명의 춤(perichoresis)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 공동예배의 제안과 예배문은 획일을 강요하는 틀이 아닙니다. 보편교회(catholicity)의 거룩한 전통과 신앙의 맥에 기대면서, 지역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살아가는 고유한 특수성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 예배는 다채롭게 피어나야 합니다. 이 예배문은 교회 전례 전통의 구조에 깊이 기대고 있지만, 문자적으로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개별 교회와 공동체 현장의 목회적인 상황과 신자들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예배를 구성하고 실천하는 창조적인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은 정해진 문자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살아 숨 쉬는 공동체의 호흡 안에서 소통하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 1) 부활절 공동예배의 구조

이 예배문은 오랜 교회의 예배 전통, 특별히 부활절 전례 구조와 의미, 그 적용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동서방 교회가 서로 대화하고 연구하며 함께 발견하고 동의하는 전형적인 예배의 구조입니다. 말씀과 성찬의 축으로 마련된 예배의 기본 구조를 전후하여, 교회는 모여서 축하하고, 마침내 세상에 새로운 존재로 파송됩니다.

- 모임 예식            예배로의 부름
- 빛의 예식            새로운 창조의 불을 축하
- 말씀의 전례        구원사의 예언과 성취
- 물의 예식            새로운 창조의 물과 세례 언약의 갱신
- 성찬의 전례        한 몸이 되는 신비와 은총
- 파송 예식            흠여지는 교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로서 함께 모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의 불인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비추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을 축하하려 모여든 빛의 백성입니다. 예배하려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기억하며, 그 성취를 다시 확인합니다. 물의 예식에서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 생명의 물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세례의 서약을 갱신하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과 실천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양식이며, 그리스도의 현존 자체입니다. 이 신비와 은총의 선물을 몸에 모시고, 함께 나누어 먹는 이들[식구:食口]로서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의 ‘초막’에 머물지 않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벗어나 공동체의 ‘한 몸’으로 세상 속으로 파견되는 존재입니다. 이로써 세상 속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선교가 ‘전례 이후의 전례’인 이유입니다.

## 2. 부활 공동 예배 해설:

### 역사와 신학, 그리고 목회적인 적용

#### 1) 모임 예식 - 예배로의 부름

##### ① 역사적 기원과 발전:

초대 교회의 부활 전례는 성목요일의 세족례와 마지막 만찬, 성금요일의 십자가 수난, 그리고 성토요일의 절대적인 침묵을 거쳐 부활밤 전례(Paschal Vigil)로 이어지는 ‘부활 성삼일’(Paschal Triduum)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모든 거룩한 밤 예배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계(음부)로 내려가신 성토요일의 텅 빈 시간과 공간을 지나, 주일 새벽 동이 틀 무렵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우주적 ‘문턱’ 위에 공동체로 함께 서는 행동입니다.

##### ② 신학적 의미:

‘예배로의 부름’(모임 예식)은 세상이 만들어 낸 단절과 파편화를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흩어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류, 다시 말해 ‘에클레시아’(ekklesia)로 재창조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단순히 소생한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창조하는 장소입니다. “죽음의 밤을 지나 바로 오늘 새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다”라는 선포는, 전쟁과 분열, 질병과 죽음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사귄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진실을 선언하는 강력한 종말론적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는 부름 안에서 모여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우주적 사건에 동참합니다.

##### ③ 목회적인 중요성과 적용: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질병, 노령 가족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감, 일상의 피로와 경제적인 몸부림 등 저마다의 ‘죽음의 밤’을 통과하며 예배당의 문턱을 넘습니다. 따라서 이 모

임 예식은 극진한 환대의 공간이 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예배 인도자는 신자들이 안고 온 삶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 모든 짐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부활의 인사를 나눕니다. 인도자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신자들은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화답하는 일은 수동적 관찰을 넘어 부활의 증인으로 예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상호 행동입니다. 예배당 입구에서부터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침체된 분위기를 깨뜨리는 활기차고 장엄한 입례 행렬을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 2) 빛의 예식 - 새로운 창조의 불을 축하

### ① 역사적 기원과 발전:

빛의 예식은 유대교 공동체가 안식일 전날 밤 등불을 켜고 축복하던 전통(Lucernarium)을 초대 교회가 부활밤 예배에 도입하면서 발전했습니다. 4세기경부터는 새로운 불을 축복하고 부활초(Paschal Candle)에 불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승리와 구원의 신비를 장엄하게 노래하는 부활 찬송(Exsultet)이 이 예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에 젖은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모닥불(요한 21:9) 등이 실제로 타오르며 빛나는 불로 표현되었습니다.

### ② 신학적 의미:

어두운 예배당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부활초의 행진(순행)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서가 없다 하더라도, 부활초의 존재와 그 빛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초에 새겨놓은 십자가와 알파와 오메가 표시, 그리고 그 해의 연도는 부활 사건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시각적으로 선포합니다. “이 빛이 비취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생명과 평화가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물리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폭력, 혐오, 절망이라는 사회적, 우주적 어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뚫고 나오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승리를 향한 찬양입니다.

### ③ 목회적인 중요성과 적용:

시각 중심적인 현대인들에게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수많은 논리적 설교보다 더 깊은 자극과 영적 울림을 줍니다. 이 예식은 신자들에게 시각적, 감각적 전이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약간 어둡게 유지하다가, 인도자가 부활초를 밝힐 때, 신자 석의 조명을 점진적으로 밝히는 연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신자들이 미리 준비된 작은 초를 들고 부활초로부터 직접 불빛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회를 비롯하여 로마 가톨릭교회와 정교회 같은 전례 교회는 이런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작은 생명이 그리스도의 거대한 생명에 잇대어 있으며, 우리가 서로의 빛을 의존하고

나누는 '빛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하는 강력한 목회적 행동입니다.

### 3) 말씀의 전례 - 구원사의 예언과 성취

#### ① 역사적 기원과 발전:

말씀의 예전은 유대교 회당의 성서 낭독 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부활밤 전례에서는 세례 지원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천지창조부터 노아의 홍수, 출애굽의 흥해 건넌, 예언자들의 회복 약속에 이르기까지 최대 12개의 구약 본문을 길게 낭독했습니다. (전례 전통의 교회에서는 현대 전례 개혁 이후 대체로 7개의 구약 본문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주며, 그 역사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 ② 신학적 의미:

이 예배문에 제시한 예레미야서, 골로새서, 요한복음의 배치는 성서해석에서 예표론 (typology)의 전형을 따른 것입니다. 세계교회의 공동전례독서(Common Lectionary)에 적용된 독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의 포로 귀환과 회복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성서 독서는 단순한 성서 본문 읽기가 아니라, 과거의 구원 사건을 지금 여기에 모인 신자들에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기억의 현재화(anamnesis)입니다.

#### ③ 목회적인 중요성과 적용:

부활 전례 설교의 핵심은 2천 년 전의 빈 무덤과 오늘날 신자들이 마주한 삶의 빈 무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교리적으로 증명하려 하기보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성서 봉독자는 '말씀'을 정보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선포자의 태도로 서야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의 복음서가 낭독될 때는 신자들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교회의 오랜 전례 전통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과 공동체의 한가운데로 환대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신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가르치고 안내하면 좋겠습니다.

### 4) 물의 예식 - 세례 언약 갱신

#### ① 역사적 기원과 발전:

초대 교회에서 세례성사는 일 년 중 부활절에만 행해졌으며, 어쩌면 가장 성대하고 떨리는 예식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교육받은 세례 지원자들이 겉옷을 벗고 물속으로 깊이 잠기는 행동은 죽음의 무덤 속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었고, 물 밖으로 나와 흰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후 유아세례가 보편화되면서, 이미 세

례받은 신자들이 부활절에 모여 자신의 세례 서약을 갱신하고 믿음을 재확인하는 예식으로 발전하여 보편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 ② 신학적 의미:

이 예식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다시금 경험하게 합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의 부활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합니다”라는 고백은 개인적 구원을 넘어서 ‘함께 세례받은 이들의 존재’에 관한 선언이며, 교회의 본질에 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물은 죽음을 가져오는 혼돈의 바다이자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세례를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모든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타락시키는 악한 세력과 모든 죄악을 물리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이후 사도신경에 따른 신앙고백의 문답 안에서, 세상의 계급과 장벽을 허물고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 자체라는 진실을 다시 선포합니다. 신앙고백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천명하는 강력한 에큐메니칼 선언이기도 합니다.

## ③ 목회적인 중요성과 적용:

현대의 신자들은 질병의 고통, 경제적 실패 등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세례 재확인 은 신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되새겨 주는 목회적 돌봄의 행동입니다. 예배당 앞쪽에 세례대를 비치하고 물을 채워둘 수 있습니다. 인도자가 물의 기억을 되새기며 물뿌리개용으로 만든 꽃가지나 나뭇가지로 신자들에게 물을 뿌리는 순서를 적극 도입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의 물이 얼굴과 피부에 닿는 촉각의 경험은, 메말라 있던 신자들의 영혼을 깨우고 자신과 교회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며 공동체’라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 5) 성찬의 전례 - 한 몸이 되는 신비와 은총

### ① 역사적 기원과 발전:

부활밤 전례의 절정이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세례를 통해 새롭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들과 기존의 신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빵을 떼어 나눌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부활 신앙과 성찬례는 역사와 시간을 넘어 교회의 심장으로 고동칩니다.

### ② 신학적 의미:

성찬의 전례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총체적으로 기념하고(아넴네시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여(에피클레시스) 일상의 요소인 빵과 포도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스럽게 변화시키는 신비입니다. 세계 에큐메니칼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듯이, 성찬은 일치의 성사입니다. 수많은 밀알이 부서져 하나의 빵이 되듯,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몸이 됩니다. (축성한) 빵/떡을 쪼개 할 때, 신자들이 함께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이를 드러냅니다. 나아가 ‘한 몸 기도’를 통해 “창조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성찬의 신비가 만물의 생태적 회복으로 확장된다는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보여줍니다.

### ③ 목회적인 중요성과 적용:

우리 사회와 교회, 신자들의 삶은 여러 형태로 분절된 상태를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전환점이나 분기점에 마주 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성찬은 세대 간의 갈등이나, 여러 형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치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빵을 나누는 쪼개는 행동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하면 좋습니다. 하나의 큰 빵을 준비하여 모두가 보는 앞에서 쪼개어 나누기를 권합니다. 이 순서가 좀 더 진정성을 갖도록 성찬 전후에 깊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안내하고 순서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병환이나 거동이 불편하여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특별히 언급하여 기억하는 일은 목회적 돌봄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신자들을 (축성한) 빵을 모시고 심방을 가는 일은 전례를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확장하는 거룩한 실천이며 복된 목회적 배려입니다.

## 6) 파송 예식 - 흠여지는 교회

### ① 역사적 기원과 발전:

서방 교회 전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흠여지십시오”(Ite, missa est)라는 선언에서 라틴어 ‘미사’(Missa - Mass)라는 말이 되었고, 이는 ‘선교’(mission)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예배의 끝은 세상 속으로 새롭게 파송된다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래아로 가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예배당이라는 거룩한 피난처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선교의 의미가 강력합니다.

### ② 신학적 의미:

파송 예식은 ‘전례 이후의 전례’(Liturgy after the Liturgy)의 개념이 집약된 순서입니다. 성찬으로 일치하고 ‘한 몸’이 된 공동체는 이제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피조물들을 돌보는 사명에 동참하도록 파송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안고 정의와 평화의 순례길로 나아갑니다”라는 파송의 선언은, 부활 신앙이 개인과 내세의 안위만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의 구조적 불의에 맞서 생명을 살려내는 사회적 참여와 행동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다. “흠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는 선언은 주일의 예배가 평일의 삶으로 온전히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 ③ 목회적인 중요성과 적용: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신자라고 해도, 문을 나서는 순간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일상의 삶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축복기도와 파송의 선언은 단순히 예배를 마치는 의식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 속으로 생명의 증인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확신에 찬 응원이 담겨야 합니다. 목회자는 예배당에서 선포된 기쁨이 신자들의 손발을 통해 번져나가도록, 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의 부활절기 동안 각자와 가정, 공동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구체적인 ‘부활의 행동’(소외된 이웃 돌보기, 생태적 낭비 줄이기)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 3. 나가는 말 -

### 부활의 실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부활절 공동 예배는 분열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을 위한 정의와 평화, 사랑의 일치로 선포하는 거룩한 연대의 몸짓입니다. 빛과 말씀, 물의 기억과 성찬으로 이어지는 예배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신비에 온몸으로 참여하며 진정한 ‘한 몸’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이 경험은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 ‘몸’의 행동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문은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 문서는 아닙니다. 각 지역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고유한 목회적 상황 안에서 생명력 있게 피어나도록 돕는 예배의 한 모델입니다. 더 풍요로운 고민과 적용, 공동체의 예배 참여로 더욱 복된 부활 뜻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교파와 전통의 벽을 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생명의 잔치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부활의 은총을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선포된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일상을 거쳐 상처 입은 세상 속으로 힘차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삶의 전례’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 예배문 공동 감수: 2026년 NCCK 부활절 공동예배문 자문위원**

〈 2026년 NCCK 부활절 공동예배문 자문위원 〉

박종환 목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예배학 교수

박해중 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

임영섭 목사, 경동교회

주낙현 신부, 대한성공회 전례위원장, 영등포교회

최진봉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예배·설교학 교수

\* 예배문 해설: 주낙현 신부, 대한성공회 전례위원장

---

## “흘어져-함께”

“하나님의 창조세계, 한 몸 되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고린도전서 12:25-27)

이 땅에서 “흘어져” 있지만 “함께” 부활절을 맞는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2026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 주제는 “흘어져-함께”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본정신인 ‘함께’(일치와 연대)를 강조하던 기존의 문구에 ‘흘어짐’을 병렬로 배치한 것이 낯설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한 곳에 모여 거대한 장관을 이루는 방식으로만 일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자리, 각자의 교회와 마을과 삶의 현장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처지에 맞는 기도를 올리며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결단을 품음으로써 한 몸임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흘어져 있으되 영으로 하나 되어 일상의 자리에서 부활의 숨결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몸의 재발견과 연결되는데, 우리의 신체가 놓여있는 삶의 자리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사건(성)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치’라는 에큐메니칼 신학의 대전제 아래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에큐메니칼에서 말하는 ‘일치’란 ‘다양성 가운데 일치’입니다. “흘어져” 존재하는 각자 이 지닌 차이와 다양성을 함부로 소거하지 말고, 그 개별성과 특별함에 깃든 사연을 경청하면서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와 만납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흘어져” 있던 자들이 한 몸이 되어 “함께” 기쁨의 춤을 출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신앙에 대한 성찰의 자리로 나갈 것을 권합니다. 신학계에서 간혹 언급되었던 ‘춤추는 신’, 혹은 ‘춤의 왕’이라는 신에 대한 언술은 영과 육이 떨어져 있다는 이원론적 한계를 넘어선 구원의 총체성을 지향하는데, 그 과정에서 몸에 대한 긍정, 부활의 전인성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그것은 은혜의 일상성과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 위치하는 인간의 신체성, 고통받다가 사망에 이르는 몸이야말로 신학적 언어와

부활의 감격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흠어져-함께” 맞이하는 부활이란 부활을 교리적 차원이 아닌 존재의 차원으로 증언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마 5:13-16)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해야 하는, 혹은 할 수 있는 다양한 (소금과 빛의) 사역 중 하나를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각각이 태어난 꼴과 모양대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는 전 피조물들을 향해 ‘너희의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과 같다’는 찬사를 보냅니다. 교회의 위기는 전도의 전략과 프로그램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론적인 선교를 포기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로서의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성(性)과 인종과 계급과 종교와 이념을 만날 때 각각이 지닌 존재의 다차원성을 인정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흠어져-함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선언입니다. 성령께서는 특정 장소에 갇히지 않으시며, 부활의 생명은 경계를 넘어 흐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여 거대한 합창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몸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흠어져-함께”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의 광경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다양성이 불일치의 증거가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오히려 교회 각 지체들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교회일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에큐메니칼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일치와 화해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헬라이어 ‘오이쿠메네’에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이쿠메네’는 넓은 의미의 ‘살림살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이쿠메네’는 ‘죽음에서 살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에큐메니칼 신앙과 부활신앙이 만납니다. 우리의 신학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에큐메니칼 하지 않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 사유의 종착점과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참의 현상학 앞에 회개하면서 고개 숙여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가자지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는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신 후에, “오너라!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사 21:5)고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 평화와 살림을 향한 행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찢어진 몸을 다시 잇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죽음의 질서를 넘어 생명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전 12:25) 하신 말씀처럼, 한 몸 된 교회는 “흠어져” 고통받는 지체와 “함께” 아파하고, 억눌린 피조물과 함

께 탄식하며, 창조세계 전체가 기쁨의 춤으로 응답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것을 몸소 드러내 보이셨고, 사망과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와 쾌락의 원칙과 맘몬의 위세가 마침내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절망의 언어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분열의 시대 속에서 화해를 선택하며, 무관심의 문화 속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2026년 부활절, 우리는 “홀어져” 있지만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올린 기도와 작은 실천이 모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찢어진 세상을 다시 잇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온 창조가 기쁨의 춤으로 화답하는 오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평화와 살림을 향한 행진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2026년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 취지문 작성: 이상철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 크리스찬아카데미 원장)

# 2026 한국기독교 부활절 맞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한몸 되어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  
고전 12:25-2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부활절을 맞아 특정 공간과 시간에 모이는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교회와 지역,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동의 예배문과 기도를 나누고 사순절 동안 정의와 평화의 실천을 이어가는 '흠어져-함께' 에큐메니칼 실천을 제안합니다.

\* **흠어져-함께**  
부활절맞이 챌린지  
매주 목요일,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기

\* **기독교여성선언** 3월 5일(목)  
3.8 세계 여성의날 기념 선언

\* **에큐메니칼 평화기도회**  
& 올리브나무 캠페인 3월 12일(목)

\* **남북공동기도** 3월 19일(목)  
부활절 남북공동기도문 발표

\* **고난의 현장 예배** 3월 26일(목)  
태안화력발전소 앞 기도회

\* **성 고난주간 매일기도**  
3월 30일(월)-4월3일(금)

\* **흠어져-함께 부활주일** 4월 5일(일)  
2026부활절 공동예배문으로 흠어져-함께 예배  
NCCK부활절 메시지 발표

부활절맞이 자료공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한국 그리스도인

## 에큐메니칼 평화기도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사2:4)

우리는 지금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며,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군사적 충돌이  
즉각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2026년 3월 12일(목) 저녁 7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공동주관**

NCCK화해와통일위원회 NCCK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문의**

NCCK사무국  
02.763.799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6 사순절 40일간의 동행

# 생명과 땅을 지키기 위한 팔레스타인 올리브 나무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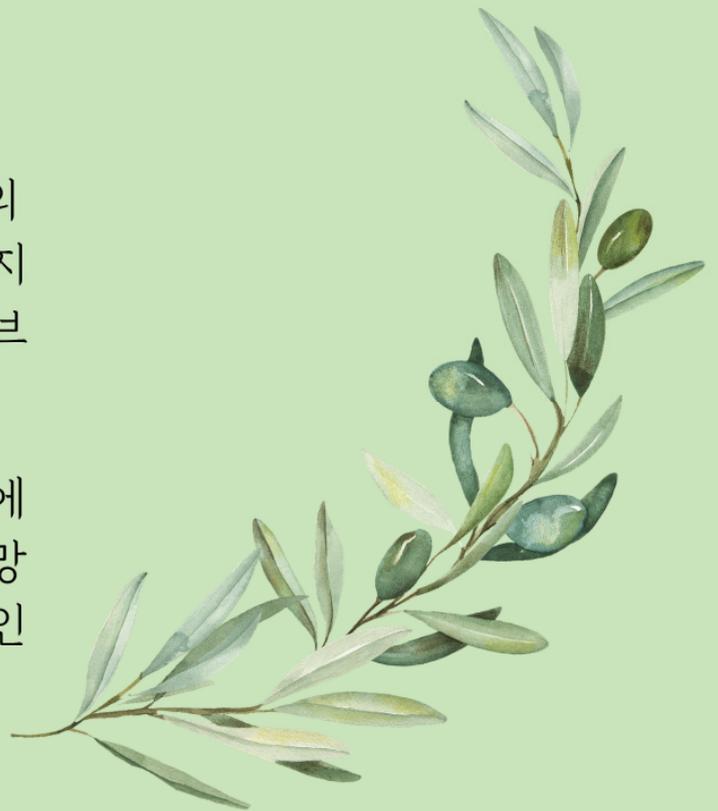
### 팔레스타인 올리브 나무 캠페인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점령 속에서도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연대하는 생명·평화 운동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삶과 저항, 희망의 상징입니다.

###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한국 교회와 시민들이 함께 1,000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모아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심고자 합니다. 한 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3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참여가 팔레스타인 땅에 생명을 심는 평화의 행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팔레스타인 땅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 생명과 땅을 지키기 위한 팔레스타인 올리브 나무 캠페인

 **캠페인 기간** 2026년 사순절  
2월 18일(수) ~ 4월 4일(토)

 **캠페인 목표** 1,000그루 (3,000만원)  
올리브나무 한 그루 당 3만원

 **모금 계좌** 신한 100-035-625201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문의: NCKK 국제협력선교위원회 (02-764-0203)  
NCKK 디아코니아위원회 (02-3673-1386)  
고양YMCA (031-938-610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 고난의 현장 예배

정의로운 전환 -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고, 위험한 일은 하청 노동자에게 맡겨져왔습니다. 노동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6년 사순절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드리는 고난의 현장 예배는 이러한 현실을 돌아보며, 누구도 버려지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참가신청



2026년 3월 26일(목) 12시  
태안화력발전소 앞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길 241-3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